

2018년 거창군 특성화프로그램

# 가족과 함께하는 교과서속 역사교실

5월



- 2018년 거창군 특성화프로그램 -

**가족과 함께 하는 교과서속 역사교실(서울)**

□ 행사개요

- 일 시: 2018. 5. 26.(토) 08:00 ~ 19:00 / 출발 한마음도서관 앞
- 장 소: 서울시 일원
- 참여인원: 80여명(해설교사 포함)
- 준 비 물: 참가비 1만원(인당)
- 주요일정

시 간	장 소	내 용	기 타
08:00	한마음도서관앞	출발	휴게소 1곳 경유 이동간 학습 : 조선의 건국과 궁궐이야기
11:30	서울 삼청동	점심 식사-불고기뚥배기	
13:00	종묘	조선의 왕과 왕비 사당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정전과 영녕전 알아보기
14:00	창덕궁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는 창덕궁의 구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후원 관람은 제외
15:30	거창으로 출발		휴게소 1곳 경유 이동간 학습 : 조선의 왕과 창덕궁
19:00	한마음도서관앞	도착	해산

※ 위 내용은 현장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담당 김광선 010-2397-5975

○ 향후추진계획

회차	일시	장소	주요내용	비고
4	6. 23.(토)	문경 충주	문경-고모산성(삼국시대 산성 임진왜란 왜군의 진격로) 충주-충주 고구려비, 통일 신라 중앙탑	
5	9. 15.(토)	울산	울산반구대, 반구대암각화-선사시대의 암각화 감포대왕암- 삼국통일 문무대왕릉	
6	10. 27.(토)	서울	덕수궁-석조전과 구러시아공사관, 중명전 정동-덕수궁 돌담길, 개화기 격동의 역사, 청계천	



" 비보는 방황하고, 현명한 사람 여행한다. "

- T. 플러

\*오늘 답사 일정은 **거창** ⇒ **서울** 입니다.

지리적 위치를 지도에서 확인해봅시다.



### ✎ 깜짝 퀴즈!!

하나, 거창에서 서울까지 지나온 숨은 도시 찾기~~

두울, 소백산맥을 넘는 고개로서 3170m 길이의 터널의 이름 찾기~~



## <조선의 수도, 한양>

궁궐의 위치는 동아시아에서 예로부터 도시를 형성하는 기본 원칙으로 좌측에는 국가의 제례를 관장하는 종묘를 그리고 우측에는 토지와 곡식의 신을 모시는 사직단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두어왔다. 조선의 수도인 서울 역시 법궁인 경복궁을 중심으로 경복궁의 좌측에는 종묘를 건축했다. 종묘사직은 왕의 조상신을 모신 사당인 '종묘'와 토지와 곡식의 신에게 제사 지내는 '사직단'을 함께 부르는 말이다. 지금은 종묘사직이 큰 역할을 못하지만, 왕이 나라를 이끌던 시대에는 왕의 정통성을 조상신과 자연신으로부터 부여받았기에 이들에게 제사 지내는 곳인 종묘와 사직단이 매우 중요한 장소였다.



### ▣ 종묘


종묘는 조선왕조 역대 왕과 왕비 및 추존된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유교사당으로서 가장 정제되고 장엄한 건축물 중의 하나이다. 유교를 기본 이념으로 삼았던 나라들은 대부분 종묘 제도를 채택했는데, 지금까지 종묘와 종묘에서 지내는 제사 의식을 이어 오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종묘는 태조 3년 (1394) 10월 조선 왕조가 한양으로 도읍을 옮긴 그해 12월에 착공하여 이듬해 9월에 완공 하였으며, 곧이어 개성으로부터 태조의 4대조인 목조, 익조, 도조, 환조의 신주를 모셨다. 현재 정전에는 19실에 49위, 영녕전에는 16실에 34위의 신위가 모셔져 있고, 정전 뜰앞에 있는 공신당에는 조선시대 공신 83위가 모셔져 있다. 그래서 유네스코는 종묘를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했으며, 종묘에서 지내는 제사인 '종묘 제례'와 그때 쓰는 음악인 '종묘 제례악'을 세계 무형 유산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종묘제례 및 제례악>>

2001년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결작'으로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으로 등재,  
2008년부터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제1호,



 **깜짝 퀴즈!!** 나의 발자취를 화살표로 표시해보기~~

<하마비와 어정>

종묘의 정문으로 들어서기 전에 주위를 한번 둘러보면 오른쪽에 돌로 만든 비석이 있다. 이곳에 이르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 모두 말에서 내리라는 뜻으로 세워 놓은 하마비이다. 종묘는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곳이기 때문에 왕이라도 가마나 말에서 내려야 했다. 하마비에서 왼쪽으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는 우물은 왕이 종묘에 행차하였을 때 마셨다고 해서 어정(御井)이라고 한다.

<종묘의 정문, 외대문>

외대문은 보통 궁궐이나 왕실의 다른 건물과는 달리 화려하지 않고 단순하면서 소박하게 지었다. 종묘가 아주 신성한 곳이기 때문에 높디란 계단을 통해 엄숙하게 출입했다.

외대문 안으로 들어서면 넓은 마당 가운데 돌로 만든 길이 세 줄로 길게 뻗어 있는데, 이것은 신과 왕과 세자가 다니던 길로 삼도라고 한다.

가운데 길은 신이 다니는 길인 신로이며, 종묘의 주인은 죽은 왕과 왕비들의 혼령이기에 아무리 높은 왕이라도 신로로 다닐 수 없다. 신로의 오른쪽은 왕이 다니는 길이고, 왼쪽은 세자가 다니는 길이다.



 **깜짝 퀴즈!!** 내가 걸어야하는 길 찾아보기~~

### <정전>

종묘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정전이다. 붉은 문 안에 조선의 왕이었던 열아홉 분의 위패와 왕비들의 위패를 모셨다. 처음에 정전은 신실(위패를 모신 방) 5칸과 좌우의 협실 2칸으로 지어졌다. 시간이 흘러 왕들이 죽자 신실이 부족해져 정전 옆에 또 다른 사당인 영녕전을 만들어 위패를 옮겨 모셨다. 그래도 위패를 모시기에 좁아 명종, 영조, 헌종 때 세 차례에 걸쳐 건물을 새로이 증축하였다. 자세히 살펴보면 오랜 세월을 걸쳐 덧대어 지은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다. 이 때문에 건물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두 차례 커지게 된 살아있는 건축물이다.

### <영녕전>

정전 뒤쪽에는 '조상과 자손이 길이 평안하라'는 뜻의 영녕전이 있다. 영녕전에는 태조 이성계의 4대 조상인 목조·익조·도조·환조와 그의 왕비들, 예종처럼 정전에 모시지 않은 왕, 덕종과 장조처럼 실제로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돌아가신 뒤에 왕의 칭호를 받은 분들을 모셨다. 영녕전은 16칸으로 되어 있어 정전보다 길이가 짧다. 모습도 정전과 다르다. 영녕전 가운데에 있는 지붕이 조금 더 높다.



↳ 정전



영녕전 ←

### <악공청>

종묘에서 제사를 지낼 때는 격식에 맞는 제례악도 함께 연주했다. 종묘 안에는 제례악을 연주하는 악공들이 대기하던 악공청이 있다. 세종대왕은 고려 시대부터 전해 온 전통음악과 새롭게 연구한 아악을 참고하여 보태평과 정대업을 만들었다. 세조 때 이 음악을 제례악에 맞게 고쳐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보태평은 나라가 태평성대함을 찬양한 곡이고, 정대업은 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킨 업적을 기린 음악이다.

### <공신당>

공을 많이 세운 신하 83명의 위패를 모신 건물이다.

### <공민왕 신당>

고려 공민왕과 왕비인 노국공주를 모신 곳이다. 조선 시대 왕들의 혼을 모신 종묘에 고려 임금이 모셔져 있는 것이 독특하며, 태조 이성계에 의해 만들어진 건물이다.



### ▶종묘에 모시지 않은 왕

조선 시대에 왕위에서 쫓겨난 왕은 노산군, 연산군, 광해군으로 모두 세 분이다. 이 중에서 노산군은 어린 나이에 삼촌인 세조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불행하게 죽음을 당한 분이다. 다행히 숙종 때 복위되어 왕의 칭호를 되찾았다. 그래서 종묘에 위패를 모시지 않은 왕은 연산군과 광해군 이렇게 두 분이다.

### ▶영녕전에 모신 비운의 왕

사도세자는 귀한 왕자로 태어났지만 노론과 소론의 당쟁 싸움에 휘말려 결국 뒤주에 갇혀 억울하게 죽고 말았다. 그의 아들인 정조가 왕이 되자, 억울하게 죽은 아버지를 위해 무덤을 수원으로 옮기고, 묘호(왕이 죽은 뒤에 살아 있을 때 쌓은 공덕을 기려 붙인 이름)를 장조라 하여 종묘에 모셨다.

 **깜짝 퀴즈!!** 너구리와 함께 사진찍기 달인 되어보기~~

## ■ 창덕궁

창덕궁은 조선의 세 번째 임금인 태종(1405년)때 지은 궁궐이다. 그러나 1592년 임진왜란으로 한양의 모든 궁궐이 불타게 되었다. 이 전쟁이 끝난 후 광해군 때 창덕궁을 다시 지어 사용하게 되었다. 그때부터 고종이 경복궁을 다시 만들 때까지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궁궐로서 약 250년간 사용되었다. 조선의 궁궐 중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임금들이 나랏일을 살피고 생활했던 궁궐로서 정궁보다 더 정궁의 역할을 하며 많은 왕들이 사랑한 궁궐이 되었다.

1910년 8월 순종은 이 창덕궁에서 마지막 어전회의를 열고 대한제국의 통치권을 일본에 빼앗겼다. 이후 일제강점기로 인해 서울의 궁궐들이 파괴되기도 하고 그 기능을 훼손당하였지만 그나마 남아 있는 조선의 궁궐 중에서 창덕궁이 그 원래 모습에 가장 가깝게 보존되고 있다. 특히 자연의 능선을 그대로 살린 후원이 아름다워 1997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조선의 마지막 왕이 숨을 거둔 곳이며, 광복 이후 1989년까지는 영친왕의 부인이셨던 이방자여사와 덕혜옹주가 마지막까지 창덕궁의 낙선재에서 살아 왕실가족의 숨결이 전해지는 곳이다.



- |          |          |
|----------|----------|
| 1. 돈화문   | 2. 금천교   |
| 3. 진선문   | 4. 숙장문   |
| 5. 인정문   | 6. 인정전   |
| 7. 선정전   | 8. 회정당   |
| 9. 대조전   | 10. 경훈각  |
| 11. 내의원  | 12. 어차고  |
| 13. 낙선재  | 14. 영화당  |
| 15. 부용정  | 16. 부용지  |
| 17. 주합루  | 18. 애련지  |
| 19. 연경당  | 20. 선향재  |
| 21. 관람정  | 22. 옥류천  |
| 23. 다래나무 | 24. 신선원전 |
| 25. 의로전  | 26. 합나무  |
| 27. 주차장  |          |

**▶ 깜짝 퀴즈!!** 나의 발자취를 화살표로 표시해보기~~

### <돈화문(敦化門)>

돈화문은 '가르치고 이끌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한다'는 뜻으로 창덕궁의 정문이다. 현재 남아있는 조선 궁궐의 정문 중 가장 오래된 문이다. 2층 건물로 되어 있으며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돈화문 2층에는 마루가 깔려있었고, 그 안에는 큰 종이 걸려 있어서 시각을 알려주거나 비상시 위급을 알리는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은 종은 남아있지 않다.



### <금천교(錦川橋)>

궁궐의 정문을 지나면 만나게 되는 이 돌다리를 일반적으로 금천교(禁川橋)라고 한다. 경복궁의 금천교는 영제교, 창경궁의 금천교는 옥천교, 창덕궁의 금천교는 비단금(錦)자를 사용하여 금천교(錦川橋)라고 한다. 비단 같이 맑은 물이 흐른다고 해서 금천교라는 이름이 되었다. 금천은 배산임수, 공간구분, 방화수, 세정수를 뜻한다고 한다.

\*서수 : 돌 난간 네 귀퉁이에는 동물 모양의 조각상이 있는데 이를 '서수'라고 해요. 이 서수는 모두 다른 방향을 쳐다보며 궁궐 안으로 들어오려는 잡귀들을 감시하고 있다.



**📌 깜짝 퀴즈!!** 금천교 다리 아래쪽을 살펴보면 두 개의 홍예(아치)가 만나는 지점에 귀면을 박아 놓았고, 북쪽 남쪽 난간에도 동물이 지키고 있습니다. 각각 어떤 동물일까요?

### <진선문(進善門)>

정전에 들어가 왕을 만나기 위해서는 3개의 문을 지나야 한다. 그 중 2번째 문이 진선문이다. 국가의 정통성과 왕의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 3개의 문은 일직선 상에 위치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창덕궁은 자연과의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배치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첫 번째 돈의문을 지나 오른쪽으로 방향을 돌면 두 번째 진선문이 나오게 된다. 진선문에는 현재 설치되어 있지 않지만, 조선시대 태종, 영조 때에 백성들의 억울함을 호소하도록 만들어진 신문고가 걸려 있었다고 한다.



### <인정문(仁政門)>

인정문은 정전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문으로 그 격이 높고 주요한 공간이다. 사극에서 "조정으로 들라"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텐데, 조정이란 조회를 비롯하여 각종 국가적 행사를 치르던 마당을 말한다. 인정문을 중심으로 안쪽의 마당을 '내조정'이라고 하고, 인정전 밖의 넓은 마당을 '외조정'이라고 한다. 외조정은 각종 의식의 본부석 역할을 하던 궁궐의 광장이다.

외조정에서 이루어지던 행사 중 가장 큰 행사는 왕의 즉위식이다. 새로운 왕은 인정문에서 즉위식을 한 다음에야 인정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한다. 바로 이곳에서 조선 27대 임금 중 연산군, 효종, 현종, 숙종, 영조, 순조, 철종, 고종 등 8분이 왕위에 올랐다. 일제강점기에는 이 공간이 화단으로 꾸며지는 등 심하게 훼손되었으나 지금은 일부 복원되었다.



**✎ 팜팜 퀴즈!!** 창덕궁은 정전으로 가는 동안 문3개를 지났습니다. 경복궁과는 다르게 창덕궁의 배치는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는 구조로 일직선으로 놓이지 못하고 문3개가 어떠한 방향으로 배치되었는지 생각하며 그려보기~~

### <인정전(仁政殿)> 국보 제225호

인정전의 이름에는 '어진 정치를 펼치겠다'는 뜻이 담겨있다. 이곳에서는 조하, 조례, 책봉식, 외국사신접대 등 공식적인 행사가 열렸다. 밖에서 보면 2층 건물처럼 보이지만 안쪽에는 2층이 아닌 1층으로 하나의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어 장엄한 느낌을 준다. 내부에는 왕의 자리인 어좌와 국왕의 만수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일월 오봉도가 그려진 병풍이 있다.





다른 궁궐의 정전과는 달리 내부에는 서양식 커튼과 전등이 장식되어 있고, 바닥은 전돌이 아닌 마루가 깔려 있다. 이것은 대한제국 말기에 내부를 서구식으로 개조하면서 조선의 건축양식에 서구식 건축양식이 더해진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마지막 황제인 순종이 살던 창덕궁이 당시에 많은 근대화적 변화를 겪었음을 짐작해 볼 수도 있다.

인정전은 1910년의 경술국치조약이 이곳에서 강제 체결되었는데, 우리 민족의 씻을 수 없는 비극의 현장이기도 하다.

cf. 조례 : 조정의 관리들이 아침에 궁궐에 모여 임금을 뵈던 일,  
 조하 : 경축일에 신하들이 조정에 나아가 임금에게 축하하던 일.

### <선정전(宣政殿)>

선정전은 우리나라 궁궐에서 유일하게 청기와를 사용한 건물이다. 청기와는 푸른색 도자기 기와로 조선 전기에 많이 사용했는데, 너무 많은 돈과 노력이 들어가 17C 이후에는 많이 사용하지 않았다. 선정전은 편전으로 왕과 신하가 함께 나랏일을 의논하던 건물이다.

「조선왕조실록」과 「궁궐지」에 보면 성종 때에는 이곳에서 성균관 유생들과 공부를 하기도 했다고 하며, 왕비가 선정전에서 양로연을 베풀기도 하고 직접 누에치는 것을 보여주기도 했었다고 한다.



## 🍷 깜짝 퀴즈!!

선정전 축대 위에 있는 이것은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이것에 물을 가득 채워 놓으면 침입해 오던 불귀신이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달아난다고 믿었어요, 이것을 순 우리말로 무엇이라 부를까요?



### <희정당(熙政堂)>

선정전 옆에 있는 건물이 희정당이다. 이 건물은 1917년 큰 화재로 없어지고 경복궁에 있던 강녕전을 옮겨와 다시 만든 모습이다. 희정당은 주로 왕이 잠을 자는 침전으로 사용되었다가, 순조 때에는 사무실인 편전으로 많이 사용되었다고 한다. 건물 내부의 응접실과 회의실 바닥의 마루, 유리 창문, 커튼, 전등, 카펫 등에서 서양풍을 볼 수 있다.

### <대조전(大造殿)>

대조전은 내전의 가장 중심건물이다. 대조란 '크게 만든다' 또는 '위대한 창조'를 의미하며, 이는 곧 성군의 자질을 가진 왕자가 태어나기를 기원한다는 이름인 것이다. 옛 사람들은 훌륭한 왕자를 낳으려면 하늘과 땅의 기운이 잘 통하여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정기가 잘 통하도록 왕비의 침전에는 용마루를 없앴다.

### <낙선재(樂善齋)>

낙선재는 조선 24대 헌종 임금님께서 후궁 경빈 김씨를 위해 지은 집이다. 낙선재 동쪽으로는 사랑방에 해당되는 석복헌과 수강재가 있다. 수강재는 영친왕이 돌아가실 당시 덕혜옹주가 수강재에 잠시 머물기도 했다. 낙선재의 정문은 위로 솟아오른 솟을대문으로 장락문이라고 한다. 그 밑의 바닥을 보면 흠이 파져있는데 이렇게 대문이 위로 솟아 높고 바닥에 흠이 파여 들어간 것은 초헌이라는 외바퀴 수레가 들어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높은 가문의 양반만이 초헌을 타고 다녔다. 이런 솟을대문을 가지고 있는 집은 큰 권세가의 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